

지금 세계에는 금연바람이 거세게 분다

**미국은 정부가 담배 규제, 일본은 간접흡연
규제 엄격, 부탄은 나라 전체가 금연구역**

지금 전 세계에는 금연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흡연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유럽에서도 금연바람이 거세다. 흡연자가 많은 그리스와 터키가 강력한 금연법을 최근 제정했으며, 유럽연합은 공동의 '흡연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의 금연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고자 한다.

☞ 김원희(의학전문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2일 백악관에서 연방의원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담배를 정부의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됐다.

법안은 식품의약국이 담배의 광고와 판매, 제조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새 상품이 나오면 FDA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으며 식품의약국은 담배 제품의 성분을 평가해 니코틴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고, 해롭다고 판단되는 담배 내용물의 금지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서 담배광고가 금지되며, 10대가 읽을 수 있는 출판물에는 광고도 통제된다. 또,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문구와 그래픽 경고라벨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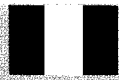


**간접흡연
규제 엄격한
일본**



일본은 간접흡연을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이다. 2001년 도쿄에서 한 남성이 피우던 담배 불똥이 어린아이의 눈에 닿아 실명하듯 한 사건을 계기로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났으며,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상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000~3,000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쿄 치요다쿠는 일본 최초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한 지역으로, 야스쿠니 일대와 칸다, 아키하바라, 유락쵸역 인근 등 치요다쿠 내 19개 지역에서는 노상흡연이 금지됐다.

**이탈리아
세계 최초
실내흡연 금지**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모든 실내 공간의 흡연을 금지시킨 법을 2004년 통과시켰다. 2003년 법원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금연법 시행 이후 카페와 식당 내 통풍기가 부착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12세 이하 아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아파트의 계단, 로비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닫힌 공간에서의 흡연도 금지됐으며, 1인 이상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공장 등 일터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실내금연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등으로 확산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 유럽연합 27개국의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금연과 관련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연법 초안을 마련했다.

**'금연도시'
선포한 홍콩**



홍콩은 2007년 1월 도시 전체를 '완전 금연도시'로 선포하고, 유홍업소는 물론 모든 사업장과 공원, 체육관, 운동장, 해변 등 50만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작은 공원을 제외한 실외지역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6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업주는 징역 2년형에 처하게 된다. 가

정집과 일부 길거리의 흡연구역 말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
금연국가 부탄**



인구 70만 명의 입헌군주제 국가인 히말라야의 부탄은 2004년 모든 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담배 판매 금지조치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교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부탄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상점과 호텔 소유주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며, 일반인은 2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탄은 17세기 초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으며, 수도 팀푸시의 경우 20개 구 가운데 19개 구가 이미 종교적 이유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금연 강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금연구역 확대나 담배가격 인상 등의 금연정책을 펼쳐 흡연율을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2020 전략'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

을 20%까지 낮추기 위해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 8월부터는 담배의 광고와 판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5월 16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을 했기 때문이다. 협약은 5년 이내에 담배 광고, 판촉, 후원 등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광고 규제가 이뤄지면 현재 담배제품에 대해 허용된 담배 소매점 내부의 광고나 연간 60회 이내의 잡지 광고, 사회문화체육 행사 후원,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내 광고 등 4가지도 금지, 또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발붙일 곳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규제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규제강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6